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공동 투자유치전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중심지 서울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금융감독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금융권(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현대해상)과 함께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를 알리는 투자유치전(IR)을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뉴욕 투자 유치전에는 칼라일그룹,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자산운용사와 해외 투자자 및 주뉴욕총영사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시를 대표해서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 '글로벌 혁신 경제허브, 서울'을 소개했다. 강 부시장은 "서울은 경제와 문화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도시"라며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인 서울은 매력적인 소비 시장과 유능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강조했다.시는 또 현장에 참석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면담을 통해 서울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을 알리고 서울의 투자 환경을 홍보했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소개하며 해외 금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쳤다.IR에 시는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유르겐 보겔(Juergen Voegele) 세계은행 부총재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의 정책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강 부시장은 "세계 5위의 금융중심지로서 도약하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와 동행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겠다"고 말했다.